

구마모토 현립 미술관

구마모토 현립 미술관은 구마모토성 부지 내 북서쪽 한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건물은 르 코르뷔지에의 제자이자 도쿄의 우에노에 위치한 도쿄도 미술관을 설계한 유명 건축가 마에카와 구니오(1905-1986)가 설계를 담당했습니다.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저층 건축물은 마에카와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.

미술관의 소장품은 구마모토와 관련된 일본 고대 미술, 구마모토와 인연이 깊은 예술가의 일본 근대 미술, 서양 미술까지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‘이마니시 컬렉션’에서는 유명 수집가였던 이마니시 기쿠마쓰(1913-1987)가 수집한 일본 풍속화인 우키요에, 다도구, 골동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‘하마다 지메이실’에서는 구마모토 출신의 조각가이자 미술가였던 하마다 지메이(1917-2018)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전시 내용은 연중 내내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.

미술관 1 층에는 200~600 년에 조성된 고분의 안쪽과 바깥쪽 면에 조각과 선각, 채색으로 문양과 회화 등을 장식한 ‘장식고분’을 상설 전시합니다. 장식고분은 규슈 북부와 중부를 중심으로 일본 전국에 700 기가 현존해 있으며, 그중 약 200 기가 구마모토현에 위치해 있습니다.

호소카와 컬렉션

‘호소카와 컬렉션’의 핵심 전시품은 1632 년 이래 당시 구마모토번을 다스렸던 호소카와 가문에서 11 대에 걸쳐 조성된 것입니다. 1993 년부터 1994 년까지 18 대 당주였던 호소카와 모리히로 씨가 총리대신을 역임하는 등 호소카와 가문은 지금도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도쿄의 공익재단법인 에세이 문고에는 아즈치모모야마 시대(1568-1600)부터 쇼와 시대(1926-1989)의 회화와 선화, 전통 예술 노가쿠에 사용하는 가면, 다도구, 갑옷 등 약 9 만 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. 미술관에서는 별관 또는 본관에 마련된 전시장에서 주제별로 30~60 점의 소장품을 교대 전시합니다.

관내 카페와 테라스에서는 성의 부지를 조망할 수 있으며, 지역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기분 전환까지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